

開放時代의 經濟懸案들

崔 泰 鎬

〈國民大教授·經博〉

1. 最近의 世界經濟 潮流

최근의 世界經濟는 새로운 歷史的 轉換點에서 있다. 기존의 世界經濟秩序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今後의 새로운 時代를 예고하는 몇 가지의 變化현상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의 變化현상은 世界最大의 經濟大國이며 基軸通貨國인 美國이 債務國으로 轉落되었다는 사실이다. 1次大戰을 계기로 美國은 종래의 債務國에서 債權國으로 전환되었고, 그 후 半世紀 이상이나 세계적인 大債權國으로 繁榮을 누리 왔다. 그러나 60年代 後半부터 美國의 국제 경쟁력은 점차 弱화되기 시작하여 貿易赤字가 累增되어 갔고, 그 과정에서 美國은 可能한 모든 政策手段을 總動員하여 美國經濟의 回生을 試圖해 보았으나 최근에 와서는 國家財政마저 破綻에 빠져 85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純債務國으로 轉落되고 말았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美國經濟에 內在한 구조적 矛盾(美國産業의 空洞化 현상 등)에서 必然的으로 惹起된 일종의 病理現象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美國은 國際收支構造가 貿易赤字→經常收支赤字→債務超過라는 段層的인 惡化과정을 걷게 되자 經濟政策과 通貨政策의 修正 내지 反轉을 거듭해 왔으며, 그 때마다 通商摩擦을 惹起시키면서 他國에 內需擴大를 요구하는 등 世界經濟에 큰 波紋을 던져 주

었다. 이는 마치 1次大戰 前後期부터 국제 경쟁력을 완전히 喪失하게 된 英國이 1919년의 金輸出禁止→25년의 金本位制復歸→31년의 金本位制停止 등으로 通貨政策의 修正을 反覆하면서 基軸通貨國의 자리에서 서서히 退場해 간 20世紀 初葉의 狀況을 연상케 하고 있다.

둘째의 變化현상은 日本이 世界 第1의 債權國으로 浮上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戰後의 廢墟에서 회생한 日本은 58년부터 貿易黑字國으로 轉換되어 68년부터는 債權國으로 浮上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日本은 계속적인 經常黑字를 쌓아올림으로써 85년에는 對外純資産이 약 1,300억달러, 86년에는 약 2,100억달러에 달하여 世界最大의 債權國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기 今後의 90年代에는 日本의 對外純資産이 크게 擴大되어 日本의 經濟動向과 金融動向은 그것이 곧 世界經濟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時代가 올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1次大戰을 계기로 하여 世界經濟의 主役이 英國에서 美國으로 바뀌어 간 歷史과정을 이번에는 美國과 日本사이에서 연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하겠다.

세째의 變化현상은 開途國의 兩極分화가 進行되어 世界經濟의 多極化현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60~70年代에 걸쳐서는 많은 開途國이 高度成長을 지속하면서 工業化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70年代 후반부터는 1次產品價格의 下落과 더불어 交易條件이 惡化되는 과정에서

工業化에 성공한 國家와 그렇지 못한 國家사이
에 經濟的成果面에서 兩極分化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人當 GNP가 1,000달러를 上廻
하면서 離陸에 성공한 나라가 出現하게 된 反面,
多額의 累積債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經濟發
展이 停滯된 나라가 續出하게 되었다. 그리고 工
業化에 성공한 NICS 諸國의 世界經濟에서 占하
는 比重, 즉 世界 GNP 및 世界貿易에서 占하
는 몫이 著實히 上昇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0年代부터는 이들 NICS 諸國의 先進工業國化
가 進展될 것으로 豫상되고 있으며 그 中에서도
韓國은 代表的인 事例로 注目되고 있다.

네째의 變化현상은 國際通貨 및 通商시스템의
동요가 激化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70年代부터
시작된 換率變動과 通商摩擦이 80年代에 들어
와서는 한층 더 激化되었다. 특히 基軸通貨國인
美國의 國際收支赤字가 擴大·累積되어 85년부
터는 債務國으로 轉落하는 과정에서 保護貿易의
壓力이 급격하게 高潮되어 갔으며, 이와 더불어
美國經濟回生の 심불이었던 高달러政策이 美國
産業界의 국제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게 됨으로
써 美國의 通貨政策은 다시 反轉되어 低달러政
策에로 移行되어 갔다. 이처럼 基軸通貨國의 經濟
力低下와 더불어 國際通貨의 동요 및 通商摩擦
의 激化 등이 世界經濟의 混亂을 惹起시켰고,
거기에다 世界經濟의 多極化現象이 進展됨으로
써 國際通貨 및 通商시스템에 內在하는 世界經
濟의 不安定構造는 더욱 深化되어 가고 있다.

다섯째의 變化현상은 國際的 相互依存關係가
深化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브렛튼·웁스
體制」가 붕괴된 이래 國際間的 通商摩擦이 激化
되는 가운데, 世界 各國의 企業들은 技術開發,
生産工程, 勞務, 財務, 販賣 등 經營의 모든 분
야에서 「모자이크」처럼 서로 結合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企業의 經營戰
略이 國境을 초월해서 국제적인 聯帶관계로 深
化되어 갔고, 이러한 企業間的 國際的 相互依存
관계는 先進國 企業들 뿐만 아니라 先後進國 企
業間에도 擴大·深化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오
늘의 世界經濟는 마치 産業構造의 國際的 「모자
이크化」가 進展되어 國境을 초월한 企業의 論理

와 國境을 前提로 한 國家의 論理가 相互 矛盾
된 현상을 자아내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世界
經濟의 調和的 發展에도 기여하고 있다.

2. 韓國의 貿易黑字와 對美通商摩擦

위에서 概觀한 世界經濟의 5大潮流속에서 韓
國은 80年代 後半부터 貿易黑字國으로 浮上하
여 NICS 中에서도 대표적인 工業國으로 指目되
고 있으며, 특히 基軸通貨國인 美國은 이러한
韓國을 第2의 日本으로까지 보고 있다. 돌이켜
볼 때 世界經濟의 歷史는 國家間的 貿易不均衡
問題를 둘러싸고 展開된 通商摩擦의 歷史였다고
도 볼 수 있다. 과거 1世紀 동안의 世界經濟史
만 보더라도 國際間的 通商摩擦은 일종의 周期
적인 현상처럼 反覆되어 왔는데, 그 경위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世紀末~20世紀 初頭에 걸쳐서는 특
히 先發國인 英國과 後發國인 獨逸 사이에 通商
摩擦이 激化되고 있었다. 당시의 英國經濟는 獨
逸 등 新興工業國의 追擊으로 世界經濟의 支配
的地位가 점차 低下되어 가고 있었다. 특히 獨
逸은 鐵鋼, 化學, 機械工業分野의 技術革新으로
巨額의 對英貿易黑字를 실현하면서 好況을 누리
고 있었다. 이는 1896년 런던에서 出版된 「메
이드·인·저머니」(E.E. Williams)가 말해 주
고 있듯이 당시의 獨逸製品은 英國市場을 席卷
하고 있었다. 이에 英國內에서는 保護主義의 要
求가 차츰 高潮되어 自由貿易이나 保護貿易이나
의 문제를 둘러싸고 國論이 兩分되고 있었으나,
결국 英國은 「캠버린」의 保護貿易運動을 목살하
고 金融, 海運 등 서비스産業에 依存하면서 貿
易赤字를 擴大시켜 나갔으며, 獨逸은 惡化되고
있었던 國際環境에의 對應에 失敗함으로써 1次
大戰에 의하여 破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1次大戰後~2次大戰까지의 戰間期에도 國際
的 通商摩擦이 再燃되었다. 1次大戰 以後 自動
車 및 電機産業分野의 技術革新으로 指導的 工
業國으로 浮上하기 시작한 美國은 債權國으로
面貌를 一新하게 되었으나, 國際秩序에의 對應
에 失敗함으로써 결국 全世界를 保護貿易의 소

용돌이에 몰아넣고 말았다. 美國은 1930년에 이르러 惡名 높았던 「스무트·홀리關稅法」을 制定함으로써 32년에는 「오타와協定」에 의한 「스탈링·블럭」의 結成을 자극하게 되었고, 다시 34년에는 互惠通商協定法에 의해 「달러·블럭」을 結成함으로써 世界經濟를 이룬바 「블럭經濟」의 急속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그 結果로서 世界貿易은 3분의 1 수준으로 격감되었고 급기야는 2次大戰이라는 쓰라린 經驗을 남기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많은 産業分野에서 국제 경쟁력을 喪失하게 된 美國과 「하이테크」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는 先進諸國(日本, 西獨 등) 間에 通商摩擦이 再燃되고 있는 가운데, 對美貿易黑字國으로 등장한 韓國, 臺灣 등 NICS諸國에 대해서도 市場開放과 對美換率調整 등을 強要함으로써 通商摩擦을 激化시키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韓美通商摩擦도 그 背景이 國際間的 貿易不均衡에서 유발된 歷史的 傳統要因의 反作用이라 할 수 있겠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의 對美貿易收支는 그 黑字幅이 해를 거

듬할수록 擴大되어 87년에는 95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다. 또한 對美輸出商品의 構造도 종래의 纖維製品 및 신발류 등 勞動集約的인 非耐久消費財 중심에서 乘用車, VTR, 小型컴퓨터 등 技術集約的인 耐久消費財 중심으로 크게 轉換되어감으로써 韓國商品에 대한 美國內의 관심과 警戒심을 높게 하고 있다.

이처럼 對美貿易黑字幅이 累年 擴大되어 가고, 또 對美輸出商品構造도 점차 高度化되어감에 따라 최근에 와서는 韓美間의 通商摩擦이 빈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美國側의 對韓要求도 그 內容面에서 크게 변화되고 있다. 韓美通商摩擦은 80年代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通商摩擦의 主要爭點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83년 5월~86년 11월 사이에는 C-TV의 덤핑문제를 둘러싸고 韓美間의 通商摩擦이 惹起되었고 다시 86년 1월에는 半導體에 대한 TI社의 特許權 侵害問題를 둘러싼 通商摩擦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同年 11월에는 CPT의 덤핑提訴로 通商摩擦이 再燃되었다. 그리고 極最近인 88년 2월 現在에는 韓美間의



對美貿易收支 推移表

〈表-1〉 (單位: 백만달러)

區 分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輸 出	6,119	8,129	10,479	10,754	13,880	18,311
輸 入	5,956	6,274	6,879	6,489	6,545	8,758
收 支	163	1,855	3,600	4,265	7,335	9,553

資料: 商工部

韓·美 通商摩擦 推移表

〈表-2〉

形 態	品 目	內 容
反 덤 핑	C-TV	83. 5 4個勞組가 韓國産 反덤핑提訴 86. 11 年例再審에서 最終判定(1.91% 마진율)
"	CPT	86. 11 反덤핑提訴
不公正貿易行爲	半 導 體	86. 1 TI 社가 特許權 侵害提訴
"	양 담 배	86. 2 美政府 通商法 301條 發動위협

國內 市場開放推進 現況

〈表-3〉

區 分	86년 7월	87년 7월	88년 4월
自由化品目數	309	35	145
自 由 化 率	85.8 %	95.6 %	90.8 %
主要自由化品目	C-TV, 電子렌지 브라운관	半導體, 中小型컴퓨터, 비디오 테이프, 팩시밀리	中小型 乘用車, 特殊鋼板, 建 設重裝備, 펄프·板유리 등

담배協商(主로 價格문제)이 결렬됨으로써 美通商法 301條의 發動이 거의 確實視되고 있다. 한편 美國側의 對韓要求와 主張의 內容도 최근에 와서는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종래의 輸出抑制에서 輸入擴大에로 對韓要求의 重點이 移行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通商交渉의 對象분야가 非耐久消費財로부터 耐久消費財에 이르기까지 擴大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輸出入을 결정하는 매크로적 要因, 특히 換率調整을 통한 貿易不均衡의 是正要求 등으로 多樣化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韓國側은 84년 5월부터 對外通商壓力의 緩和와 국제 경쟁력 上向對策의 一環으로 輸

入自由化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豫示制度에 의해서 國內市場開放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極最近에 와서는 韓美通商摩擦이 더욱 激化되어 가자 先進國側의 關心品目에 대하여 당초의 豫示計劃보다 自由化를 앞당겨 推進함으로써 88년 4월 1일부터는 輸入自由化率이 98%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와 더불어 外國人投資業體에 대한 投資環境의 改善을 위해 電子製品生産의 外國人投資業體에 대한 內需販賣制限을 86년 6월에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國內資本業體와 同等한 競爭條件을 부여하기도 했다.

3. 韓國의 經濟懸案

韓國은 이제 싫든 좋든 名實相符한 開放時代의 一員으로서 先進隊列에 끼어 변화하는 國際環境에 適應하면서 생존과 도약을 추구해야 할 歷史的 轉換點에 서 있다. 對美·對EC 貿易收支가 黑字基調로 바뀌면서 先進諸國(특히 美國과 EC 등)은 韓國을 脫開途國으로 指目하고 市場開放壓력과 더불어 GSP 受惠對象에서 除外시켜야 한다는 것을 끈질기게 主張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美國은 韓國의 對美貿易黑字가 累增되어 가자 極最近에 와서는 美通商法 301條의 發動을 武器로 삼아 담배, 쇠고기, 보험市場 등의 開放을 前例없이 강경한 자세로 요구하는 한편, 元貨切上을 高壓的으로 強要하면서 88년 1월에는 韓國을 GSP의 受惠對象에서 除外시켰다. 이는 마치 19世紀의 自由貿易時代에 英國이 自由貿易을 표방하면서 自國市場의 擴大를 위해 後進諸國의 門戶開放을 強要한 自由貿易帝國主義時代를 연상케 하고 있다. 따라서 現時點이야말로 韓國經濟가 지속적인 輸出擴大와 經濟成長을 통하여 黑字基調를 定着시키고, 自立經濟를 달성함으로써 先進國으로 飛上하느냐, 아니면 縱屬的인 開途國으로 殘留하게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先進國의 開放壓력과 通商摩擦 등에 모든 經濟主體가 지혜롭게 對應한다면 韓國은 先進工業國으로 飛上하게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縱屬的인 開途國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後發國들이 先發國을 追擊하면서 先進工業國으로 發展해 간 近代世界經濟史를 돌이켜 볼 때 現時點의 國際經濟환경, 즉 先進國의 開放壓력과 通商摩擦 등은 오히려 NICs 諸國의 飛上을 촉진하는 肯定的인 契機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난날의 歷史과정에서 볼 때 後發國의 비약적 발전은 항상 先進國과의 對抗 및 摩擦과정을 통하여 殘留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격화된 開放時代를 맞이하여 韓國이 직면한 經濟懸案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對應策은 무엇인가가 問題로 提起된다. 이에 대하여는 보는 사람의 視角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緊切한 韓國의 經濟懸案은 다음의 몇 가지로 集約해 볼 수도 있겠다.

첫째의 懸案은 당면한 通商摩擦의 완화 내지는 회피문제라 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激化되어 가고 있는 通商摩擦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고, 또 今後에 더욱 擴大·深化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通商摩擦을 어떤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先進國側의 요구대로 國內市場을 과감하게 開放한다면 되겠으나, 우리 企業의 國際競爭力이 아직도 脆弱한 상태여서 그러지 못하는게 우리의 現實情이다. 그렇다면 우선 多角的인 外交力量을 발휘하여 감정적인 對應戰略을 강구하면서 現代世界經濟의 相互依存關係라는 特徵을 활용한다는 次元에서 通商摩擦의 근원적인 緩和方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現代世界經濟는 企業의 國際的 相互依存關係가 深化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의 특징이 있다. 最近에 이르러 先進國間의 通商摩擦이 중심해지자 先進國 企業들이 지혜를 모아 創案해낸 戰略이 이른바 企業의 國際化戰略이었다. 다시 말하면 美·日·歐의 企業들이 서로의 長點部分을 살려서 긴밀하게 結合하여 企業經營의 國際分業化를 實現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結果로서 最近의 世界經濟는 相互依存關係가 深化되어 하나의 循環構造로 再編成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世界經濟 및 各國經濟의 安定的이며 調和的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轉換點에 선 韓國의 경우도 今後에 더욱 激化될 것으로 예상되는 通商摩擦을 회피함과 동시에 黑字基調를 定着시키면서 先進工業國으로 飛上하고 더 나아가서는 世界經濟의 안정적 발전에도 寄與한다는 次元에서 企業의 國際化戰略을 보다 能動的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企業의 國際化戰略은 다음의 두 가지 方向에서 추구될 수 있다. 그 하나는 企業의 海外進出, 즉 海外直接投資를 통한 企業內分業化를 추구하는 方向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企業과 外國企業間의 產業內分業化를 추구하는 方向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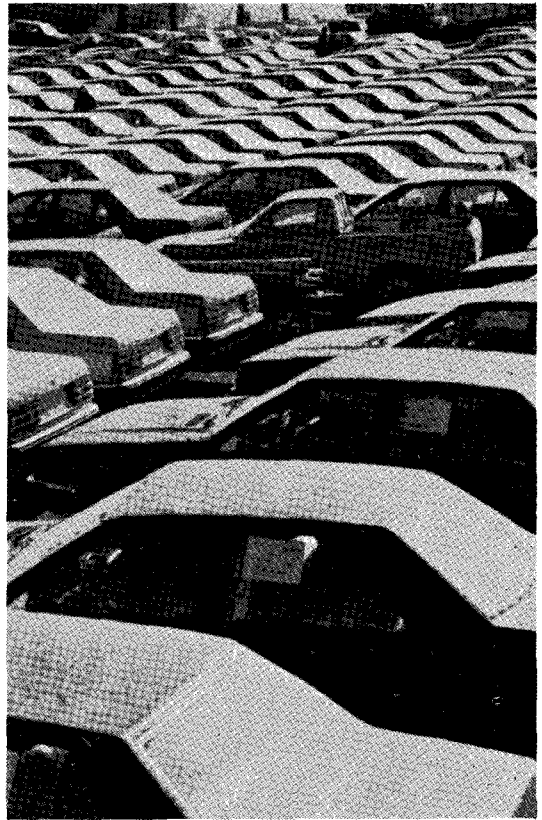
海外直接投資를 통한 企業內分業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그 하나는 垂直的인 企業內分業이고 다른 하나는 水平的인 企業內分業이 그것이다. 前者의 경우는 가령, 海外에 進出한 子會社는 組

立工程만을 分擔하면서 그 生産品을 進出國이나 第3國市場 등에 판매하고, 本國의 母企業은 海外子會社에 공급하는 各種의 部品生産工程만을 分擔하는 企業內分業의 형태이며, 後者의 경우는 예컨데, 海外(主로 開途國)에 진출한 子會社는 標準인 技術로 生産할 수 있는 量產品이나 低級品만을 生産하여 進出國市場에 판매하고, 本國의 母企業은 高級品만을 生産하여 本國市場이나 海外市場 등에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우리 企業과 外國企業間의 產業內分業도 두 가지의 形態가 있는데, 그 第1形態는 製品差別化分業이고, 第2形態는 工程間分業이 그것이다. 前者의 경우는 예컨데, 日本의 철강회사는 特殊鋼 등 高價品生産에만 特化하여 그 제품을 國內市場과 韓國市場 등에 공급하고, 韓國의 철강회사는 普通鋼이나 기타 低價格帶의 製品生産에 特化하여 그 제품을 國內市場과 日本市場 등에 공급하는 分業化를 말한다.

따라서 上述한 企業內分業 및 產業內分業 등은 다같이 比較優位에 의한 分業의 利益 뿐만 아니라 關聯企業 및 關聯國家 相互間의 貿易擴大, 더 나아가서는 全世界經濟의 발전에도 寄與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分業化體制, 즉 企業의 國際化戰略은 各國 經濟의 利害關係를 더욱 密接化 내지 一體化시킴으로써 國境을 前提로 하는 國際間의 通商摩擦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各國의 政策當局이 國際經濟문제를 다루게 되는 경우, 이러한 相互依存관계 때문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둘째의 懸案은 技術의 自體開發能力을 培養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開放經濟下에서는 技術문제가 곧 한 나라 國民經濟의 成敗를 가름하게 된다. 따라서 先進國隊列에 끼어 韓國이 생존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技術의 自體開發能力을 培養하는 문제야말로 가장 긴절한 經濟懸案의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意味에서 技術開發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더우기 최근에 와서는 先進國들이 韓國을 비롯한 NICS 諸國에 대하여 物質特許 및 知的 所有權의 보호를 強力히 要求하면서 이를 하나씩 관철시켜 가고 있다. 이에 政府나 企業은 최



근에 이르러 技術開發 努力을 한층 強化함으로써 技術開發投資의 對GNP 比率을 80年의 0.9%에서 86년에는 2.0% 수준으로 提高시키는 한편, 특히 政府側은 技術開發投資의 效率化를 위한 產業基盤技術의 開發促進, 技術開發準備金에 대한 稅制 및 金融上의 惠澤, 新技術製品에 대한 市場造成 및 需要創出을 위한 支援 등 各種의 施策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獨逸이나 日本 등이 그들의 產業革命과정에서 과감한 技術開發投資로 技術立國을 실현한 事例를 想起하여 產·學·研 共同研究 및 協調體制의 강화, 理工系大學의 研究機能강화, 理工系留學生의 誘致와 과견 등에 보다 적극적이며 아낌없는 投資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產業構造의 改編, 企業經營의 合理化追求, 物價安定基調의 固守問題 등 韓國의 經濟懸案은 山積되어 있다. ♣